선교사역 MISSION

우리의 국외 사역

큰은혜교회	히라가타 순복음교회
최정선 목사 (한국)	박경복 목사 (일본)
아가페교회	MKCC 선교센터
윤상현 선교사 (필리핀)	이일환/이진숙 선교사 (미얀마)

Compassion 컴패션과 함께 양육하는 16명의 아이들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BRIANA	ESTEFANI	CAMILA	EMELY
GENESIS	NANCY	JENNSY	GAEL
JOSUE	ROBERTO	LIA	OSCAR
LUIS	YEFERSON	ORIANA	VALENTINA

우리의 국내 사역

홈리스 아웃리치

누구의 손길도 닿지 않는 이들을 찾아가는 돌봄 사역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 3시 30분

장소: 산호세 St. 제임스 파크

지교회 (솔라노 큰빛은혜교회, 순복음 파소 교회)

솔라노 지역과 파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며 예배드리는 두 지교회

솔라노 | 주일 예배: 오후 1시 장소: 78 Peabody Rd, Vacaville, CA 95687

파소 | 주일 예배: 오전 10시 반 장소: 3402 Oak St, Paso Robles, CA 93446

캠퍼스 사역

포스트모던 사회에서 깨어있는 시대정신과
영성을 통한 캠퍼스 복음화 사역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4시

장소: De Anza college

어라이즈 워십 & 악기클래스

베이지역에 찬양의 향기가 울려 퍼지며,
악기레슨을 통해 1인 예배자의 삶을 살도록 돕는 사역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

장소: 교육관

교회비전 VISION

MISSION STATEMENT

W.O.R.L.D. VISION

Worshiping Church
예배하는 교회

Oikos Church
소그룹 교회

Reaching Out Church
돕는 교회

Life Giving Church
살리는 교회

Discipling Church
제자삼는 교회



큰빛은혜교회를
검색해보세요

예배안내 WORSHIP SERVICE

주 일 1부	오전 9시	본 당
주 일 2부	오전 10시 30분	본 당
주 일 학 교	오전 10시 30분	교 육 관
주일 청 년 부	오후 1시	교 육 관
금 요	오후 7시 30분	본 당
새 벽	오전 6시 (월-금)	교육관 / YouTube Live

Bay Area Full Gospel Church

큰빛은혜교회

Be still, and know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뭇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시편 46:10

웹 바로가기

Senior Pastor

담 임 목 사 이기봉

Asistant Pastor

교 육 전도사 김태아 임성호
Grace Kim

지교회 전도사 이중록 Sam Kim 김승연

큰빛은혜교회

415 317 4631
www.bafgchurch.org
bafgchurch@gmail.com
125 E Arques Ave, Sunnyvale, CA

예배순서 WORSHIP

제 5호 43권 Vol. 5 No.43

11.01.2026

여는 기도 Opening Prayer		임성호 전도사 Sungho Lim
경배와 찬양 Worship and Praise		다같이 Together
대표 기도 Representative Prayer		김종길 집사 Jong Gil Kim
말씀 Sermon	불편한 진실, 달콤한 열매 히브리서 12장 4~11절	저스틴 강 목사 Pastor Justin Kang
합심 기도 United Prayer		다같이 Together
봉헌 및 찬양 Offering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다같이 Together
광고 Announcements		임성호 전도사 Sungho Lim
* 찬양 Blessing Song	삼중 축복	다같이 Together
축도 Benediction		저스틴 강 목사 Pastor Justin Kang

* 자리에서 일어나서
* Please stand

대표기도 REPRESENTATIVE PRAYER

기도 순서

	11/1	11/8	11/15	11/22	11/29
1부	-	김태아	임성호	김지훈	김보라
2부	김종길	이준하	김영미	김아론	민들레

교회소식 ANNOUNCEMENTS

1. 오늘 예배 가운데 큰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말씀 증거해주신 저스틴 강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2. 11월 8일 주일예배
11월 8일 주일예배는 청년부 헌신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온 성도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특별히 청년들의 믿음과 헌신을 위해 기도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3. 담임 목사 인도네시아 사역 동정
일정: 10월 26일(월) ~ 11월 14일(토)
장소: 인도네시아 반둥 반석교회
담임목사님의 인도네시아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이 함께하시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4. 솔라노 큰빛은혜교회 추계 수련회
일정: 11월 14일(토) ~ 15일(주일)
장소: 순복음 파소교회
오고 가는 길의 안전과 두 교회 성도님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은혜를 나누는 수련회가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5. 아버지 학교
일정: 11월 15일 ~ 12월 6일 (매주 주일)
시간: 오후 1시 (주일 식사 교제 후)
대상: 모든 남성 성도
믿음 안에서 아버지의 역할과 가정의 소중함을 함께 나누는 아버지 학교가 진행됩니다. 남성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6. 11~12월 성경 읽기 프로젝트
범위: 복음서 및 사도행전, 로마서
모두 성경 읽기 표에 체크하시면서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7. 가정 예배지
홈페이지에 가정예배지가 업데이트 됩니다.
가정 예배를 통하여 승리하는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주 새벽기도회

월	화	수	목	금
열왕기상 16:29-34	열왕기상 17:1-7	열왕기상 17:8-16	열왕기상 17:17-24	열왕기상 18:1-15
Grace Kim	이중록	Sam Kim	임성호	김태아

목회자 칼럼 PASTOR'S COLUMN

11.01.2026

자유의지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한다.' 우리는 이 명제를 당연한 권리로 여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의지(Free Will)는 하나님 안에서 외부의 강요 없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인간의 근원적 능력입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로 올수록 이 자유의지는 달콤한 권리보다 '책임'이라는 묵직한 무게추와 함께 다루어져야 합니다. 책임이 결여된 자유의지는 방종이자 고립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맹목적 선택의 시대에 던지는 질문>

과거의 인류에게 자유의지는 '쟁취해야 할 해방의 도구'였습니다. 신분제와 전통, 억압적인 공동체의 규율 속에서 개인의 선택권은 극히 제한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자유의지는 거대한 벽을 깨부수고 스스로의 삶을 개척하겠다는 숭고한 투쟁에 가까웠습니다.

반면, 모든 것이 개인의 선택에 맡겨진 오늘날 '요즘 시대'의 자유의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우리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넘치는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지, 어떤 직업을 가질지, 어떤 가치관을 따를지 모두 나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선택의 자유가 극대화된 지금, 우리는 '책임의 실종'이라는 새로운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유라는 이름으로 나의 욕망만을 밀어붙이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선택의 결과가 두려워 타인이나 사회의 뒤로 숨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 삶에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가치>

• **인간 존엄성의 완성** : 프랑스의 철학자 장 폴 사르트르는 "인간은 자유롭도록 저주받았다"고 말하며, 선택에 따르는 고통스러운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내가 내린 선택의 결과를 회피하지 않고 온전히 감당해 낼 때, 인간은 비로소 유약한 존재에서 자기 삶의 주체로 거듭납니다. 책임은 자유의지를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입니다.

• **타자의 자유를 향한 존중** : 진정한 자유의지는 나의 선택이 타인에게 미칠 영향을 깊이 숙고하는 분별력에서 나옵니다. "나에게 자유가 있다면, 타인에게도 동일한 자유가 있다"는 자각은 공동체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윤리적 브레이크가 됩니다.

• **알고리즘의 지배로부터의 탈출** : 요즘 시대의 자유의지는 교묘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 속 알고리즘이 내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끊임없이 추천하고, 우리는 그것을 '내 의지'로 선택했다고 착각합니다. 이때 책임 있는 자유의지는 맹목적인 스크롤을 멈추고, "이것이 진정 내가 원한 선택인가?"를 비판적으로 질문하는 주체성으로 발현됩니다.

특히 크리스천의 자유의지는 더욱더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자유의지가 주는 해방감은 달콤하지만, 그 뒤에 따르는 책임의 무게는 무겁고 고독합니다. 그 무게를 기꺼이 짊어지려는 태도야말로 가장 크리스천다운 믿음의 사람들의 증거입니다. 내가 내딛는 한 걸음에 책임을 담을 수 있을 때, 우리의 자유의지는 비로소 세상을 더 가치 있게 만드는 위대한 힘이 될 것입니다.